

특 집: 신(新)고유가시대 세계의 에너지정책

중국 에너지정책 및 평가

임홍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slim@kiep.go.kr

국
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6년 동안 연평균 9.4%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초과하여, 1993년에는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에너지 수급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중국내에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11.5 계획에서도 에너지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밖에도 국내 에너지 자급능력 강화, 에너지 산업구조 다원화 및 환경친화 중심의 에너지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에너지부문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에너지 구조상의 문제, 둘째 석유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안보문제, 셋째 에너지 발전과 환경보호문제, 넷째 국제정치적 영향이다. 11.5계획에서 제기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정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발(發) 에너지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자체 에너지 수급체제 및 가격위기에 대응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1. 서론

중국의 에너지자원별 매장량은 석탄 1,145억 톤, 석유 240억 톤, 천연가스 1조 370억 m³이며, 수력자원은 세계 최고수준이

다(2002년 기준).¹⁾ 중국은 이처럼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1992년 이전까지는 에너지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26년 동안 연평균 9.4%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

1) 외교통상부(2005), p. 197.

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공급 증가율을 초과하여 급속히 팽창하였고, 1993년에는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경제발전의 물질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중국내에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석탄 및 각종 연료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2004년 들어서는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24개 지역에서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²⁾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5년 제11기 중

양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통과한 11차 5개년(2006~10)계획(이하 11.5계획)에서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11.5계획에서 드러난 중국 에너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에너지 현황

최근 들어 중국의 에너지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에너지 총생산량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석탄의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석유의 생산량은 세계 6위이다. 중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에너지 총생산

표 1. 중국의 에너지총생산량 및 구성

연 도	에너지 생산량 (만 톤/표준탄)	구 성 (에너지 총생산량=100)			
		석 탄	원 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1978	62,770	70.30	23.70	2.91	3.09
1980	63,735	69.50	23.75	2.98	3.77
1985	85,546	72.83	20.86	2.01	4.30
1990	103,922	74.23	19.01	1.96	4.80
1995	129,034	75.30	16.60	1.90	6.20
2000	106,988	72.0	18.1	2.8	7.2
2001	120,900	71.8	17.0	2.9	8.2
2002	139,000	72.3	16.6	3.0	8.1
2003	160,300	75.1	14.8	2.8	7.3
2004	187,341	76.0	13.4	2.9	7.7
2005	206,300	76.3	12.6	3.2	7.9

자료: 『中國統計年鑑』(2006)

2) 외교통상부, p. 198 王夢奎, p. 356 本書編寫組 編 (2005) p. 212

량은 20.63억 톤/표준탄으로 1978년과 비교해볼 때 3.3배 증가하였다. 제10차 5개년 계획 시기(2001~05)(이하 10.5시기) 동안 석탄생산량은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전기발전량은 약 80% 증가하였다. 석유생산량도 연평균 약 7.4%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 역시 1997년 이래 매년 10% 정도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하여 왔다. 특히 석탄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은 2001년 71.8%에서 2005년 76.3%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증가 및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9차 5개년 계획 시기(1996~2000)에는 에너지 총소비량이 연평균 0.13% 감소하는 추세였

다. 하지만 10.5 시기에 이르면서 연평균 총소비량은 8.8%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에너지 총소비량은 17.50억 톤/표준탄에 이르렀고 3년간 연평균 1.2억 톤/표준탄이 증가하였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인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중국 에너지 총소비량의 약 2/3가 화력발전에서 쓰인다. 중국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6.7%에서 2005년 68.7%로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 에너지 소비량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수요의 증가율은 공급 증가율을 크게 앞서 석유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에너지 총소비량 및 구성

연 도	에너지 총소비량 (만 톤/표준탄)	구 성 (에너지 총생산량=100)			
		석 탄	원 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1978	57,144	70.67	22.73	3.20	3.40
1980	60,275	72.15	20.76	3.10	3.99
1985	76,682	75.81	17.10	2.24	4.85
1990	98,703	76.19	16.62	2.05	5.14
1995	131,176	74.60	17.50	1.80	6.10
2000	130,297	67.8	23.2	2.4	6.7
2001	143,199	66.7	22.9	2.6	7.9
2002	151,797	66.3	23.4	2.6	7.7
2003	174,990	68.4	22.2	2.6	6.8
2004	203,227	68.0	22.3	2.6	7.1
2005	222,468	68.7	21.2	2.8	7.3

자료: 『中國統計年鑑』(2006)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1992년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에너지 부족국가로 전락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에너지 총생산량이 약 3.4% 증가한 반면에 에너지 소비량은 약 4.2% 증가하였다.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의 평균차는 1992년 1,914만 톤/표준탄, 1996년에는 6,332만 톤/표준탄, 2000년에는 2.3억 톤/표준탄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³⁾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정책으로 중국의 에너지 부족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10.5 기간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 평균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2003년에는 1.5억 톤/표준탄 수준까지 감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비량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석유 생산량은 1.8억~2억 톤, 수요량은 4.5억~6억 톤으로 전망되며, 석탄 생산량은 10.6억 톤, 수요량은 21억 톤, 천연가스 생산량은 1,000억~1,100억 m³, 수요량은 1,600억 m³로 추정된다.⁴⁾ 따라서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보다 장기

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에 입각하여 중동,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확보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에너지 확보 외교가 국제 에너지 자원의 가격 앙등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불러왔으며,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예를 들면 2004년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와 수출의 비중은 각각 6%와 4%에 불과하지만 세계 시멘트 수요의 50%, 철광석 35%, 알루미늄 20% 및 원유 8%를 소비하였다.⁵⁾ 11.5 계획은 중국의 에너지 상황과 소비구조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의 중국측 대응이란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 에너지정책의 방향

중국의 현 에너지정책은 1997년 리펑(李鵬) 총리의 주도로 수정된 「신에너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1993년 이래 날로 증대되는 해외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율을 완화하고, 동시에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즉 원유와 가스의 국내 생산 강화,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 구매 다변화,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활성화, 에너지 자원의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3) 『國家能源安全報告』(2005), pp. 52~60.

4) 외교통상부, pp. 198~199.

5) Ibid, p. 198.

하고 있었다.⁶⁾

중국은 점차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를 인식하면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 ‘중국에너지종합발전전략과 정책연구소조’를 결성하여 향후 20여 년간 중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인 「국가에너지 전략의 기본구상: 2000~2020」을 2003년 11월에 발표하였다.⁷⁾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거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20년 동안 중국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부문에서 당면한 4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석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지만 최근까지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셋째,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며, 넷째, 특히 석유부문에서 의존도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 안정적 수급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수요량 및 구조 변화와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한 후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⁸⁾ 첫째, 국가가 적절한 에너지 정책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적절히 낮

출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20년의 에너지 소비량을 2000년의 약 2.2배에 불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에너지 구조의 형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석탄부문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2020년에 약 8억 톤 이상의 수요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도 달라져서 교통과 건축 부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현재 약 35%의 수준에서 2020년에는 57~75%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부문이 에너지 수요의 주요 증가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05년 11.5계획에서 제시된 향후 5년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2003년 「국가에너지 전략의 기본구상」이 제시하는 바처럼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책을 가시화한 것이다.⁹⁾ 이번 정책에서는 에너지 개발을 유지하면서도 ‘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에너지 공급량보다 훨씬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생산증대’보다는 ‘소비절약’에 역점을 두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

6) Philip Andrews-Speed, Xuanli Liao and Ronald Danreuther(2002), pp. 26~42.

7) 連玉明 主編(2004), p. 36.

8) Ibid, pp. 36~45.

9) 本書編寫組 編(2005), pp. 212~216.

여주는 것이다.¹⁰⁾

4. 11.5계획의 에너지 정책

2004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이 3.1% 정도이고 또 다른 여타 국제적 에너지 공급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매년 4% 내외로 성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이러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왔다. 11.5계획은 기존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전환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¹⁾

11.5계획을 통해 분석해볼 때, 그밖에도 중국은 향후 국내 에너지 자급능력 강화, 에너지 산업구조 다원화 및 환경친화 중심의 에너지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절약우선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04년 ‘자원 절약운동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에너지 소비량 5%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다.¹²⁾ 2010년까지

10.5 시기 말기에 비해 에너지 생산 효율성을 약 20%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¹³⁾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맹목적 확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추진,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첨단기술과 설비투자 확대, 금융, 세제 및 가격우대정책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 상품의 생산을 추구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성공할 경우 202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절약 누계는 10.4억 톤/표준턴이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9,320억 위안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중국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GDP 비율이 매년 2.3~3.7% 감소하여 세계 평균인 1.1%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게 된다.

나. 국내 자급능력 강화

2005년 현재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약 93%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지만 총수입액에서 석유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불과하여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에너지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¹⁵⁾ 11.5계획은 절약에 의한

10) Ibid p. 213.

11) 財經界(2005), pp. 33~35

12) 외교통상부(2005), p. 199

13) 本書編寫組 編(2005), p. 214.

14) 전경련 차이나 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2006), p. 177.

에너지 자급능력 강화방안 이외에도 중국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석탄을 중심으로 향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 중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3%와 68.7%를 기록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도 석탄이 중국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향후 대형 석탄기지 개발을 지원하고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상의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에너지 다변화추진

현재 중국은 명확한 에너지 전략과 구조 다원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장기적으로도 석탄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력 및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가고,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전력수송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업화와 현대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의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원 공급과 경제적 부담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구조를 최대한 다원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천연가스의 소비증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04년 발표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현재 천연가스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나 2010년경에 이르면 약 25%의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고 이후 보다 급격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라. 환경 친화중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분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은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인데,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와 현황은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기술혁신과 공해산업의 역제를 통해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석탄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대체할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천연가스나 원자력 산업의 발전이 그 한 예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력 및 태양열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15) 本書編寫組 編 p. 214

16) DRC(2003)

시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이들 재생에너지산업의 비중을 2005년 7% 수준에서 2020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11.5계획 기간 중에도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¹⁷⁾

5.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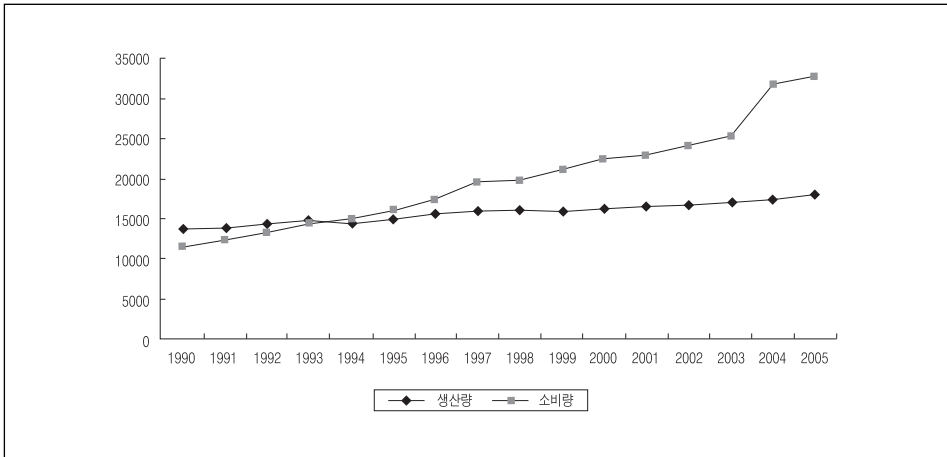
중국 에너지부문은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에서 지난 10여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에너지 구조상의 문제이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상 가장 큰 문제는 석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석유 생

산량이 소비량보다 낮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데 기본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일시적으로 국내석유 공급의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저석유생산, 고소비증가가 여전히 상충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¹⁸⁾

둘째, 석유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안보문제이다. 중국은 11.5계획 기간에 석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대외 자원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겠지만 한정된 중국의 석유자원과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석유수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석유의 대외의존도는

그림 1. 중국 석유 소비량 및 생산량 비교

(단위: 만 톤)



자료: 『國家能源安全報告』(2006)

17) 本書編寫組編, p. 216

18) 『國家能源安全報告』(2005), pp. 6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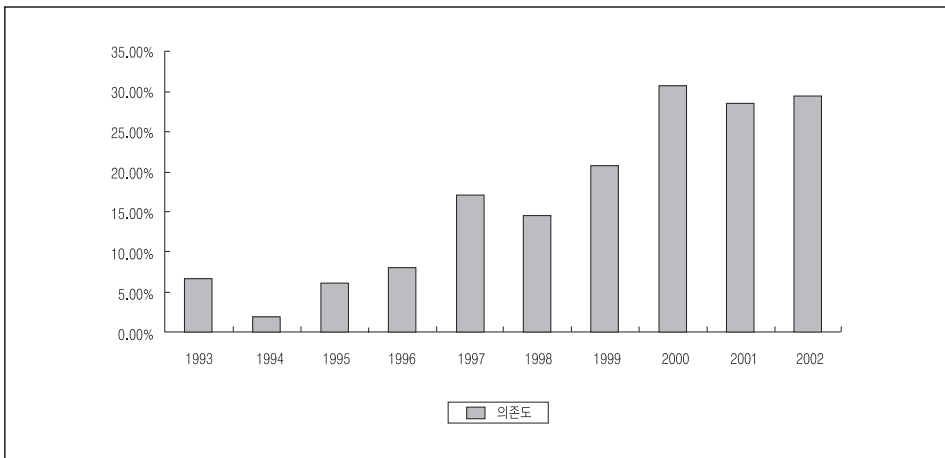
1993년 6.71%였으나 2002년에는 30%에 이르렀다. 2020년이면 수입의존도가 60%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2003년 52%로 지역적인 편중도 문제이다.

석유 수입이 중국의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석유가 유사시 전략물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 수입의존도의 지나친 증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중동정세가 불안하고 원유의 수송로가 중국군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적 공급 및 수송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유 확보선의 다원화 전략과 육상의 송유관 건설에 적극적이다.

그밖에 석유자원 공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중국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원유 비축이다. 중국은 원래 석유의 자체 수급이 가능했던 관계로 원유 비축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1999년 중국의 평균 원유 비축량은 약 15일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장(新疆), 산시(山西), 간쑤(甘肅), 닝샤(寧夏), 쓰촨(四川), 충칭(重慶) 및 칭하이(青海) 등지를 전략유전비축 지역으로 선정하여 2005년까지 약 35일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2010년까지는 50일분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¹⁹⁾

셋째, 에너지 발전과 환경보호문제이다. 11.5계획을 보면 여전히 석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석탄소비량 중 대부분이 원탄을 직접 사용하여 환경오염

그림 2.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



주: 석유소비량에 대한 석유 순수입량의 비중

자료: 『國家能源安全報告』(2005)

19) 전경련 차이나 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2006), pp. 176; 외교통상부(2005), p. 199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중국정부는 환경문제를 중시하여 전략부서를 출범시키는 등 환경보호문제에 적극적이다. 또한 환경법규를 제정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 방출량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공업부문에서의 공해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은 환경개선에 대단히 주요한 문제이다.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석탄 공급의 질과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석탄 생산과 소비의 기술수준과 저장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해와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용 후의 처리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국제정치적 영향이다.²⁰⁾ 11.5계획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의 급

속한 경제발전 추세와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확보정책은 불가피하게 국제간의 자원 확보 경쟁을 가열시키고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을 부추기며 국제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걸프지역에서 석유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힘의 격차를 인정하고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강대국화를 추진한다는 「화평발전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치중하기 위해 주변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이는 중국 스스로가 느끼는 국내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에 기반한 위기의식이 대외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이 에너지 분야에서 주변국가와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보문제와 분리하여 더욱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 전경련 차이나 포럼 경제산업 분과위원회(2006), pp. 181~183.

21) 김흥규(2006)

참고문헌

- 21세기 중국총연 편. 2005. 『중국정보 핸드북』. 서울:FKI미디어.
- 김재두. 2006. 「미래 에너지 분쟁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군사 대비 방향」. 『전략연구』.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홍규. 2006. 「후진타오 신외교노선과 북·중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5. 『중국개황 2005』. 서울: 외교통상부.
- 전경련 차이나 포럼 경제산업 분과위원회. 2006. 『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本書編寫組 編. 2005.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个五年規劃的建議』. 北京: 人民出版社.
- 連玉明 主編. 2004. 『中國數字報告』.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 倪健民. 2005. 『國家能源安全報告』. 北京: 人民出版社.
- 王夢奎 主編. 2005. 『中國中長期發全的重要問題 2006-2020』.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 財經界. 2005. 『中國能源戰略構想』, 第12期.
- 『中國統計年鑑』. 2006.
- DRC. 2003. *China's National Energy Strategy and Policy 2000-2020*. Beijing: DRC.
- Andrews-Speed, Philip, Xuanli Liao and Ronald Dannreuther. 2002.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Energy Needs*. London: IISS.